

[대한민국, 우주에 서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그녀의 모든 것

과학에 재능 '호기심 소녀'
을 '수'... 무결점 학창시절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광천동 우주소녀' 이소연씨는 대한민국의 특목하지만 평범한 딸이다. 1978년 4월 27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태어나 송원초, 송원여중을 다니며 그곳에서 자랐다. 그는 "눈과 발을 바로 볼 수 있는 광천동이 나의 삶의 원천이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웃고 울면서 살아간 이웃사촌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고 밝힌 정도로 광천동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씨의 학창시절은 한 마디로 '무결점'이었다. 송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1~6학년까지 교과학습 발달상황이 전과목 을 '수', 근면성·책임감 등 5항목의 행동 발달상황에서 전학년 모두 '가'를 받았다. '6년 개근'의 이씨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란에는 담임교사들의 칭찬 릴레이가 펼쳐졌다. '단정하고 사교적이다', '적극적이고 명랑·쾌활하다', '행동이 의젓하다', '명석한 판단력이 있다'는 등 찬사(?) 속에 '뒤지지 싫어한다'는 평가가 그나마 가장 부정적일 정도였다. 생활기록부에는 피아노, 글짓기 대회 등에서의 수상경력과 '가창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적혀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어려서부터 과학에 관심과 재능을 보였다. 그림도 '은하철도 999' 등 우주를 즐겨 그렸다. 광주과학고를 졸업한 뒤 KAIST에서 기계공학과를, 대학원에서 바이오시스템을 전공했다.

또 그는 스포츠광이기도 하다. 체력 테스트에서 팔굽혀펴기 36개로 여성 지원자 중 1위를 차지한 그는 아침 1시간 가장 조깅을 하고, 30~40분씩 수영을 즐길 정도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때 공인 3단을 획득했다. KAIST 재학중 교내 마라톤 대회에도 5박5박 참가했다. 그는 함께 우주여행을 하고 싶은 인물로 추성훈을 꼽았을 정도로 이종격투기 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를 공부와 운동만 하는 '근육질'의 여자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대학 록그룹사운드에서 보컬을 맡았고 성가대에서도 꾸준히 활동했다.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 화장품 회사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을 정도로 예술적 끼를 지녔다.

이씨의 은사인 광주과학고 정경도(57·화학) 교사는 "소연씨는 금방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항상 물어보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



초등학교 시절 이소연(오른쪽)씨가 동생들과 상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 과학고 재학 중 친구들과 포즈를 취한 이소연(가운데)씨.



가족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던 이소연(오른쪽)씨.

다"며 "운동도 잘하고 공부욕과 도전정신이 강함에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기면서 하는 성격이다"고 말했다.

정 교사의 진단은 정확했다. 지난 7일 우주인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씨는 우주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와우라고 소리칠 것 같다"며 명랑, 솔직함을 드러냈다.

세계 475번째, 여성으로서 49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여자 우주인이 된 이소연. 정말 그의 어록이 '와우'로 남을 지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주인들의 전통·징크스

환송객에 손만 흔들고 악수 안해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주비행. 때문에 임무완수를 위해 수년간 훈련을 받은 우주인들도 비행을 앞두고 긴장하게 된다. 우주인들은 이같은 긴장을 풀고 무사귀환을 비는 의식이 있는데 의식 중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다.

가장 특이한 전통은 우주인이 버스 바퀴에 소변을 보는 것.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1961년 발사장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내려 바퀴에 소변을 분 뒤 지금도 이 의식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여자 우주인은 이런 관습에서 예외이다.

우주인이 발사대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하는 버스 뒤편에 말발굽이 달려 있는데 우주인의 행운을 기원 하는 의미다. 우주인들은 환송객들에게 손만 흔들고 악수는 하지 않는다. 악수가 우주비행에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어 악수를 하지 않고, 건배도 하지 않는다.

이소연씨는 지난 4일 카자흐스탄 스리다리아 강변 우주인 호텔에서 기념 식수를 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가기 전 나무 한그루를 심었던 전통을 따랐다.

또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는 다른 우주인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 돈을 주는 전통이 있다. 사용된 지폐는 ISS 내부 벽에 붙여 놓는다. 이소연씨도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지폐 1만원, 5천원, 1천원권을 가져갔다.

우주 체류 기간의 의식주?

한국형 우주식 먹고 서서 용변

지금까지 모든 우주인들은 미국과 러시아 음식만 먹었다. 하지만 이소연씨는 전라도 한정식처럼 잘 차려지지는 않았지만 우주에서 한정식을 맛보게 됐다. 이번 우주비행에 앞서 한국형 우주음식이 처음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식을 위한 한국형 우주음식은 쌀밥과 김치, 고추장, 된장국, 라면, 보성녹차, 수정과 등 10종이다.

국물이나 음료는 농축해 블록 모양으로 냉동 건조시킨 것을 우주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신다. 국물이 새지 않게 특수포장을 하고 숟가락 대신 빨대로 빨아 먹는다.

우주에서는 꼭 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ISS가 90분마다 지구 한 바퀴 돌아 하루에 16번 밤낮이 바뀌고, 70데시벨(dB)가량의 기계소음이 항상 들리기 때문에 눈가리개와 귀마개 없으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잠은 반드시 고정된 슬리핑백 안에서 자야 한다.

생리현상도 골치 아픈 문제다. 지구에서처럼 앉은 자세를 취하고 배설을 위해 힘을 주면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다.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 대소변을 보기 전에는 먼저 발판에 발을 끼우고 허벅지 위쪽을 끈으로 고정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우주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여성우주인들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생리를 하게 되면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여행 전에 생리 억제제를 복용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5월 1일 첫년도 주야간반 모집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공시 최고

아래가제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이인 2008. 7. 21.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유재광

Table with columns: 시간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columns: 2008카공, 박상오, 자기앞수표 번호, 금액, 발행일, 발행인. Lists court cases related to checks and payments.

주택관리사

2010년 의무채용 실시확정
4월 무류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험시험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222-6790, 232-1088